

22)	一五七八	鄭大年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23)		由世霖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24)	一五八九	廣川君 青華白磁墓誌、白磁壺(국박소장)
25)	一五九一	韓宗貢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26)	一六〇一	張逸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27)	一六〇三	王女公主阿兄氏 胎缸、胎誌石(국박소장)
28)	一六〇六	仁興君 第一子 白磁胎誌접시(국박소장)
29)	一六一九	淑儀鄭氏 青華白磁墓誌(이대소장)
30)	一六二一	天啓銘 青華白磁盆台(日本소장)
31)	一六二六	仁興君 第一女 白磁胎誌접시、胎缸(국박소장)
32)	一六二七	” 第二小主 ” ” ” ”
33)	一六三二	” 第三小主 ” ” ” ”
34)	一六六八	閔天瑞 白磁鐵繪墓誌(전남대소장)
35)	一六七〇	康熙九年銘 白磁胎缸 및 胎誌石(서재식소장)
36)	一六八三	淑人洪氏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37)	一六八四	朴曾求 白磁辰砂 접시形誌石(개인소장)
38)	一七〇二	尹釵續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39)	一七〇七	沈公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40)	一七六四	權大臨 白磁鐵繪墓誌(광주동신고)

貞節公 朴光佑선생의

遺蹟·遺物

李 元 根

一、序 論

古代의 棺·槨은 墓의 侵濕을 방지하기 위해 찰흙을 사용한 바 있다. 또 王陵의 경우 封墳의 護石 등 많은 裝置을 해 왔으나 朝鮮 世祖의 光陵(一四六七)부터 王의 遺言에 의해 曠을 파고 棺을 내린 다음 三物灰로서 단단히 쌓아버리는 「灰隔墓」로 변했으며 이것이 朝鮮末까지 계속되었다^①. 一般 民間人 墓의 경우도 灰隔王陵形式을 縮小簡略化한 灰被木槨墓의 一식이었으나 世祖의 兄 溫寧君(一四五四年歿)의 墓는 土曠을 파고 長三·一m、幅一·二m、高一·一五m의 石槨(六枚板石)속에 木槨과 副葬品으로는 빈약한 白磁小形器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②. 이것은 世祖時代인 一五世紀 中半에 우리나라의 墓制가 一大轉換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一九六七年二月 京畿道 坡州郡 條理面 梧山里에 있던 朝鮮中宗朝의 文臣 朴光佑 선생의 墓所를 忠北 淸原郡 南二面 秀岱里로 移葬하다가, 木槨灰隔墓의 形式과 그 遺物인 白磁小壺와 青華白磁碟墓誌 및 靑銅鈴, 등 一括遺物이 나온것이 一九八一年六月에 뒤늦게 알려져서 당시의 墓制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생각되어 다루는 것이다.

二、先生の生涯와 行狀

朝鮮 中葉의 大學者요 忠臣인 朴光佑 선생은 中宗朝의 文官으로 本貫은 尙州요 字는 國耳·號는 華齋요 諡號는 貞節이다.

先生은 燕山君 元年(一四九五)己卯 八月 三〇日 京畿道 坡州郡 條理面 梧山里 오리골 自宅에서 工曹佐郎 生員公 璘과 德水張氏의 四子로 出生하였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片母의 薰陶아래 成長하였는데 어머니 書室三間을 별도로 세우고 네 아들을 교육함에 禮制를 지키고 教訓이 엄격하였다. 이에 선생의 學行이 크게 成就되어 名望이 一鄕에 떨치니, 이 소문을 듣고 靜菴 趙光祖선생이 친히 방문하여 자세히 살핀 다음 말하기를, 『여기서 孟母之教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크게 稱頌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中宗 一四年(一五一九) 二五歲 때에 生員進士科에 入格되어 成均館 太學生으로 있었던 바, 당시 趙光祖 선생이 己卯士禍에 만역자로 몰려 極刑에 처해지자, 율문이 충친한 선생은 李若水·申命仁 및 成均館 太學生 數十名을 창솔하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 뜰 앞에서 痛哭하며 乙卯士禍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나졸들의 驅出로 심한 상처를 입어 流血이 나자함을 무릅쓰고 옷자락을 찢어 머리를 싸매고 政府 外廊 대청에 전좌하였다. 때마침 문안과 문밖의 군중들이 원통한 사연을 입금게 올리려고 선생의 글을 구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參判 李燦과 승지 金魯는 다 소년명필이라. 이 두분이 붓을 잡고 종이를 대함에 선생이 左酬右應하여 불러주는 데, 文辭가 물 솟듯 하여 두 분이 미처 반아 쓰지 못하였으며, 一時에 一〇餘篇을 지어 그 사연과 의미가 간절하여 더욱 節義와 文名이 세상에 떨쳤다.

中宗 二〇年(一五二五 乙酉) 三一歲로 仲兄 光佐와 함께 明經科에 及第, 선생은 甲科 二等에 올랐다. 內職인 典臺省 벼슬을 在任中 간신들의 농간으로 外職으로 나가게 되어 盈德·綾城 各 邑 郡守를 거쳐 嶺東

南亞使를 역임한 바 도처에서 治績이 많았고 특히 中宗 三一年(一五三六) 載寧郡守 때에는 遠接使의 書狀官으로 수행하였다.

선생은 집에 있을 때에는 지극한 孝誠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벼슬길에 떠나 있을 때에는 가까이서 모시지 못함을 늘 한탄하였다. 사택은 비록 서울에 두었으나 伯氏 金서재공 光補가 어머니를 모시고 忠北 淸原郡 江外面 古老里에 은퇴하여 있었으므로 休職時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 성심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여 집안에 和氣가 가득하였다. 母親喪을 당해서는 初終葉禮의 凡節에 효성을 다하고 坡州의 先親 산소에 합필하고는 산소 옆에 廬幕을 짓고 三年間 侍墓하여 눈·비가 올지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朝夕으로 拜哭하며 애통해 하였다. 당시에 孝子의 이름이 났으며 喪中에 나라에서 여러번 官職을 제수하여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三年喪을 치른 후에야 다시 宦路에 나아갔다.

承文館 校理로 在任時 국사 輿地勝覽을 창술하였고, 中宗 三九年(一五四四) 봄 江陵府使로 부임하였는데 지난 해의 큰 凶年으로 굶주리는 府民들이 아주 많아서 나라에 상소하여 곡식을 들여와 府民들을 살렸고 선생이 받은 祿으로 세금과 徭役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學校를 설립하여人材를 양성하였다.

仁宗 元年(一五四五, 乙巳) 봄 內職으로 어명이 내리니 府民들이 더 있기를 간청하며 애원하였고 그 후 先生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성균을 모아 「府使朴光佑去思碑」를 江陵市 明倫洞 鄉校 구내에 세우고 正面 一間·側面 一間 맞배지붕의 風板을 달은 木造瓦家の 碑閣까지 동시에 세웠다. 또 江陵 烏竹軒에는 嘉靖 乙巳(一五四五)에 지은 「題同年進士壯元權處士山居」題下的 한문사울 및 海雲亭·葆眞堂·鳴岩亭·臨鏡堂 등에도 懸板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글들은 당시의 名文章으로 이름이 높다.

선생은 弘文館 校理·司憲府 執義·司諫院 司諫 知製敎로 승진하였다 中宗 三九年(一五四四) 一月 一〇日 王이 승하하고 仁宗이 即位하였다가 一年만에 승하하고, 乙巳年(一五四五) 明宗이 一二歲로 즉위하자



圖 1. 朴光佑先生墓所

文定王后 尹氏가 수렴청정전하며 그 친정동생 尹元衡 등이 음모한 乙巳士禍가 일어났다. 선생이 王의 龍顏을 대하여 國政을 바르게 할 것과 尹元衡의 제거를 直諫하다가 罷職된 후 다시 連累되어 대궐 뜰에서 곤장 六〇에도 불복하고 감옥에 갇힐 때 『求仁求得하니 不何怨尤하리오』하였다. 文定王后가 이 말을 듣고 刑罰을 중지하고 鳳山驛으로 정배명령을 내렸다. 선생이 정배길로 敦義門을 나오는데 惡刑의 杖毒으로 생명이 위태로왔다③. 영결 차 온 친구가 慘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조차 하지 못하니 선생이 엄연한 태도로 『捨生取義하니 俯仰無炸로다』 하고 아들 三兄弟를 부락한 다음 學問은 힘쓰되 科場에는 나가지 말라는 遺言을 남기고 별세하니 때

는 仁宗 元年(一五四五, 乙巳) 一〇月 五日이요 壽는 五一歲이다. 이어 明宗 三年(一五四七) 鄭彥愨이 良才驛 壁上에 女主執政하니 奸臣弄權이라 는 모함으로 變을 당한 丁未士禍壁書의 獄로 선생의 家産 一切를 적몰당했다. 선생의 墓所는 京畿道 坡州郡 條理面 梧山里 오리골 先塋局內에 丁坐 癸向으로 모셨다가, 一九六七年 二月 二八日 淸原郡 南二面 秀岱里 子坐原에 甌봉하

였다.

그 후 宣祖 三年(一五七〇, 庚午) 李栗谷 선생이 乙巳士禍에 被禍된 名賢들의 억울한 사실을 실원해 주고자 四一次의 上疏를 하여 英祖 八年(一七三三) 선생의 官職과 財産을 회복하였다. 또 肅宗 一三年(一六八七) 尤菴 宋時烈 선생이 墓表를 撰述하였고 同王 三十六年(一七一〇, 庚寅) 儒林에서 淸州 松泉書院에 配享하고 春秋로 祭行하던 바 高宗 二年(一八六五) 大院君 집권당시 毀撤되었다. 英祖 元年(一七二五 乙巳) 二月 忠淸·慶尙·京畿·全羅·江原의 五道儒林代表 朴世炯氏 外(二〇〇餘名)의 連名의 上疏로 선생의 贈職을 要請한 바, 英祖 七年(一七三二) 辛亥) 三月 吏曹判書의 贈職을 내렸다. 한편 선생의 九代孫 朴履中이 正祖 一〇年(一七八六, 丙午) 九月 八日 諡號 요청을 하였는데, 翌一年(一七八七, 丁未) 正月 一九日 奉常寺에 바쳤고, 二二日 弘文館에 드려서 同王 一二年(一七八八, 戊申) 四月 六日 貞節公의 諡號를 내리고 吏曹判書 徐有隣公이 諡狀을 지었던 바, 「不隱無屈曰貞이요 謹行制度曰節」이라 하였다. 同王 二〇年(一七九六 丙辰) 一〇月 二八日 延(迎) 諡宴을 淸州市 開新洞 배티(梨岬)에서 거행했다.

三、先生의 遺蹟 遺物

一、墓所

一九六七年 二月 淸州로 緬奉하기 위하여 曠中을 파 본즉 意外로 内外棺(內棺 外槨)을 갖추었고 遺骸와 壽衣는 산 사람처럼 전혀 腐蝕이 없이 온전하였는데 曠中 밖에 옮겨 모셔 時間이 좀 지나니 비로소 屍身이 부패하기 始作했다고 한다. 수의는 도로 棺 안에 넣어 묻고 靈柩를 淸原郡 南二面 秀岱里로 甌봉하였다. 지금 墓域은 一四〇坪 정도에 子坐午向으로 中央의 封墳(徑 六·七m·高三m)을 중심으로 양쪽 날개가 左右의 龍虎가 되었으며, 封墳 바로 앞에 직합碑와 床石이 놓여 있다. 床石의 左側 四m에 宋尤菴 撰述의 墓表, 右側 四m에 移轉碑가 서 있고, 一段



圖 2. 棺槨(清州市 斜川洞)

아래의 左右에 童子石
· 文官石 · 망두석 한
쌍씩이 있으며 向左側
에 事蹟碑가 있는데,
正面 中央에 장면등이
서 있다. (圖一)

主宋尤庵 撰述

墓表國朝賢士之禍莫
慘於已卯謹按氏錄云
朴光佑字國耳禍作入
關門被傷裂衣幅裏頭
坐於政府外廊都中坊
里約徒之愆上筭仲寬
求其文者簇立於前李
參判燦金參立魯皆年
妙善書使兩公把筆臨
紙公左酬右言文詞湧
出金李猶未及書一時
所製十餘道辭意懇切

後登乙酉斜嘗散官乙巳以司諫杖殞丁未籍沒家產今
又按家狀公年二十五中乙卯生員與兄光佐同取乙酉明經科連斥爲幕職丁母
喪廬墓三年哭不避雨雪乙巳爲司諫士禍循起犯顏爭論下獄供辭有求仁得仁
又何怨尤語時十月五日也年五十一臨絕託友人以三子使爲學而勿入科場葬
于坡州先塋丁坐之原公尙州人其上世沙伐國主也高麗贊成事侶封尙山府院
君自是歲有達官 本朝吏曹判書良生督察湍寺正貞地生員璘是公高曾祖考
也妣張氏同知有誠女其先浙江人有舜龍東來受籍于德水縣張氏德性純篤爲
諸子築書室禁切聞出入使諸子終有所成就也公配朴氏籍密陽其考義齡也三
男受容宜後朝廷授受以司圃署司圃不肯仕容騎牛讀書遊都市中以自浼蓋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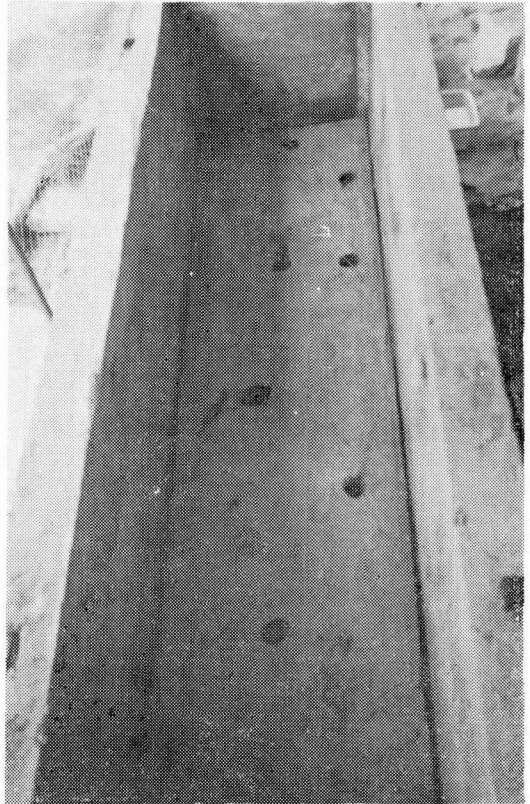


圖 3. 內棺안의 七星板

遺意也三子皆無子公伯氏孫長裕爲司圃後長裕亦無嗣嗣其後者其兄景裕之
子轅而有七男曰而文而煥而昌而燁而章而彬而亮女婿鄭普三也內外男女甚
蕃其顯者而煥女婿持平李伯麟容之外曾孫正郎姜汝載及其子正言碩昌也宜
側出定生殷生二子霖囊也今來請墓文者而煥及而文之男梲也安錄所謂今上
庚午即 宣廟三年栗谷三年栗谷先生仲雪乙巳諸賢時也狀中所謂乙巳士禍
文定垂簾時也所謂丁未籍沒鄭彥愨壁書告變時也餘竊惟公以高才美質發軔
正路早爲靜庵先生所賞自期許甚不淺也始不幸而遭衰貞之禍再不幸而被衡
苞朋磁之釐竟殞其身痛矣雖然前與靜菴諸賢同其流後與晦齋圭菴同其波芳
名無止榮及後昆不可謂不遇爲善者可以勸矣時

崇禎強圍單闕坤之上澣德殷宋時烈謹述

二、棺槨

前述한 바와 같이 一九六七年 二月 淸州로 먼봉하기 위해 曠中을 과
보니 內의 二重棺(內棺·外槨)을 갖추었고 그 안의 屍身과 壽衣는 산사
람처럼 전혀 腐蝕이 없이 온전하였는데 地上에 들어 내놓고 약간 時間

文獻上 또는 實物에 있어 朝鮮 世祖代(一五世紀 中葉)에 發生한 靑華 이 경과하자 屍身이 부패하기 始作했다고 한다. 壽衣를 棺槨안에 도로 넣고 묻었다가 最近 다시 파서 확인하니 그 동안 완전 부식되어 남은 것이 없어서 버리고 內棺 外槨과 三物灰 조각 五片만을 淸州로 운반하였는데 棺槨은 한 곳의 損傷이나 腐蝕이 없는 完形이다. (圖2)

지금 이 棺槨은 一四世孫인 淸州市 斜川洞 九番地 朴明燮氏 宅의 鳥 舍 안에 三物灰 조각과 함께 잘 保存되어 있다. 材料는 香나무로서 모 두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上廣下狹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外槨의 蓋板만이 없을 뿐 各部材가 完存한다.

內棺은 長一五〇·五cm 上幅六九·六cm 下幅五九·五cm 下高五二·一cm 下高四六·五cm이며 底板은 上厚一一cm 下厚九cm이고 側板의 厚九·五cm, 上下板의 厚九·一~九·二cm로서 안치수(內法)는 長二一〇cm에 上幅四九·五cm 下幅四二cm에 內高(深)은 上쪽 四六·五cm 下쪽 三五cm여서 이 속에 屍身을 安置하여 外槨 속에 넣게 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는 蓋板은 上幅六八·八cm 長二二六·一cm 厚一〇·六cm이다.

이 內棺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內棺 안의 바닥에 그 크기에 알맞도록 上廣四七·五cm 長八二·二cm, 下廣四〇cm, 厚一cm의 판자를 깔았는데 板의 밑에 一·五~三cm의 부식물은 棺木인지 흙인지 壽衣의 부식된 부분으로 보이나 확인할 수 없었다. 이 板에 一一~三〇cm의 간격으로 左右로 짚은 지름二~三·四cm의 구멍 七個를 불(火)로 가져 파놓은 七星모양의 圓孔이 있어 七星板으로 보았다. 이 七星은 淸原郡 文義面 佳湖里 아득이 新石器時代의 돌무덤 바닥에 자갈들을 七星形態로 놓은 古代⑤에서부터 朝鮮時代에까지 이어지면서 後代에 와서 사람의 壽命을 주장하고 人事百般에 萬能의 靈力을 미친다고 하여 소원성취를 바라는 뜻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七星信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圖3) 이렇게 木棺內에 北斗七星을 표시한 例는 아직 發見調査된 바가 없는 희귀한 遺例로서 注目되는 동시에 七星信仰 및 墓制研究에 貴重한 資料

라 할 것이다.

外槨은 長二八〇cm×上幅 九九·五cm, 下幅 八七cm×上高 七九·五cm 下高 七一cm이며, 底板은 上厚 一三cm, 下厚 一cm이고 側板은 上厚 一cm, 下厚 八cm, 上板과 下板의 厚 一一~一三cm로서, 안치수(內法)는 長二五六cm에 上幅 七七·一cm, 下幅 六九cm에 內高(深)은 上쪽 六九cm, 下쪽 六〇cm여서 이 속에 內棺을 넣게 되었다. 蓋板은 떨어져 나갔으나 蓋板과의 接合部에 못(棺釘)을 쓰지 않고 짜맞추기 위한 凹凸이 있다.

三、三物灰

이 棺槨의 外部 上下左右에는 三物灰 즉 石灰·黃土·細砂를 三·二·一의 比率로 섞어 누름나무 楡皮(楡皮) 다린 물로 古代의 콘크리트로 단단히 쌓아 버리는 소위 灰隔墓의 形式인데다가, 二重의 內外棺으로 밀폐되어 空氣의 流通이 없이 이른바 「미이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棺槨을 다시 파낼 때 棺槨과 함께 三物灰의 단단한 조각 五片을 파내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 (圖2 참조)

四、白磁小壺

全高 一〇cm에 腹徑 一〇cm, 底徑 五·五cm에 굽받침 高 〇·三이며 목의 縮約이 완전한 白磁小壺이다. 목이 直口에 가까운 高 一cm 厚 〇·二cm의 口緣部가 있다. 一九六三年 서울 미아동에서 발견된 世祖의 兄 溫寧君(一四四四年沒) 土壙墓 속에서 나온 빈약한 白磁 小形器와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덮개는 高 一·八cm 口徑 五·五cm에 厚 〇·四cm이며 위에 高 一·五cm의 塔形 꼭지가 있다. (圖4 참조)

五、靑銅鈴

屍身의 발밑部分에서 五個가 나왔으며 現代의 방울과 별 다름이 없는 형태로서, 高 一·三cm에 中徑 二·六cm 底幅 一·八cm이며 밑에 입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돌이 들어 방울이 되어 있다. 裝身用인지 副葬用인지 분명하지 않다.

六、靑華白磁碟 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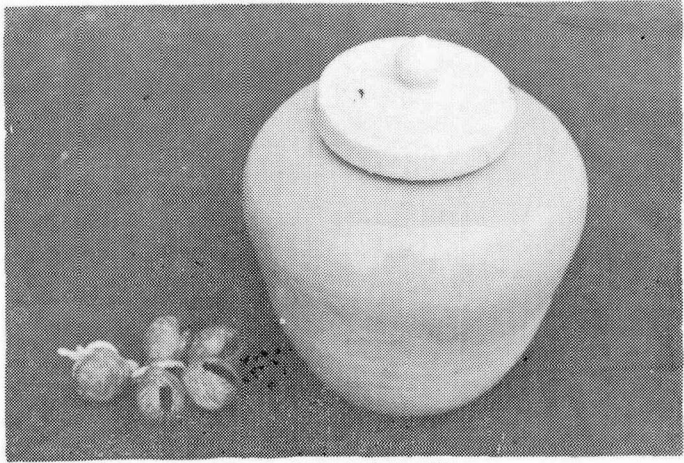


圖 4. 銅鈴과 白磁小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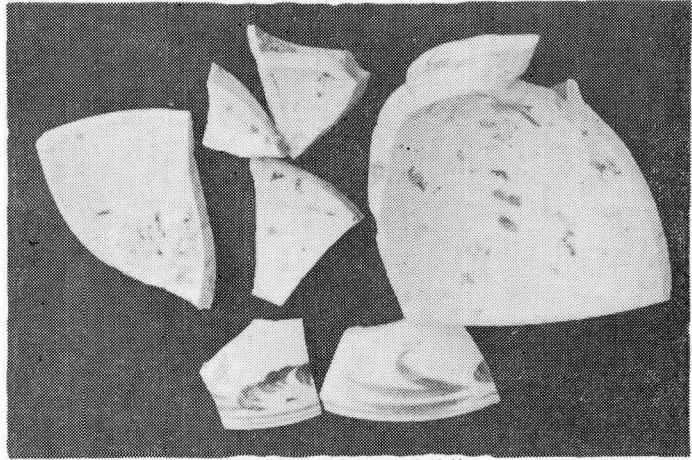


圖 5. 青華白磁 墓誌片

白系統의 墳石로서 안타깝게 出土中 몇개의 조각으로 깨어져 전체의 器形이나 口徑은 확인할 수 없었다. 측정할 그릇의 크기는 高 九 cm、底部의 內徑 六·二 cm、外形 七 cm 에 臺高 一·一 cm 이며 厚 底部 一 cm、口緣 〇·五 cm 인데 안쪽 그릇 壁에 「配字 徑 三 × 二 cm」가 쓰여져 있어 墓誌(志)로 보인다. 死者의 姓名·官位·行蹟·子孫의 姓名 및 生·死·葬의 年月日을 적어서 棺과 함께 묻는 陶板이 대부분인데 青華白磁碟에 적은 점이 注目된다. (圖 5)

七、바닥기와(平瓦) 一點
길이 四〇 cm、幅 三六·五 cm、厚 一·八 cm 의 素文平瓦로서 안쪽에 麻痕이 宛연하다.

八、贈職教旨(紅教旨)(圖 6)

가로 一〇七·五 × 세로 七二 cm 의 紅色紙에 楷書體 縱書로

教旨(六 × 六 cm) 「通訓大夫行司諫院司諫知製教朴光佑贈資憲大」 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字徑 五·五 × 四·五 cm) 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總府都摠(字徑 四 × 四·五) 都摠府都摠(字徑 四 × 四·五)
雍正九年三月 日(字徑 五·五 × 四·五 cm)

九、贈貞夫人教旨(圖 7)

가로 一一〇 × 세로 七〇 cm 의 韓紙에 教旨(六·五 × 八 cm) 淑人朴氏「贈貞夫人」者 雍正九年三月 日(字徑 五·五 × 四 cm)

贈資憲大夫人吏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 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朴光佑妻依法典「從夫職(字徑 一·五 × 二 cm)

一〇、諡號教旨(圖 8)

가로 一〇 × 세로 五八·二 cm 의 韓紙에

教旨(字徑 六 × 六 cm) 「贈資憲大夫吏曹」 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文館大」 提學知春秋館成均館」 事五衛都摠府都摠管」 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知製教朴光佑贈諡「貞節公者(字徑 五 × 六 cm)

不隱無屈曰貞謹行制度曰節(二 × 二·五 cm)
乾隆五十三年四月切六日(五 × 六 cm)

一一、諡號記(圖 9)

가로 八〇·三 × 세로 五八、六 cm 에
諡號(字徑 六 × 六 cm) 「贈吏曹判書(四 × 四、五 cm) 朴光佑(二 × 二、五 cm) 貞節

不隱無屈曰貞」謹行制度曰節(二×二cm)
 乾隆五十三年四月 日出 正言 서명
 大司諫 司諫 獻納 正言

五、結 言

이상과 같이 貞節公 朴光佑 선생의 行狀과 그의 遺蹟·遺物인 墓所와 一括遺物 및 教旨까지 살펴 보았다. 主人公인 貞節公이 유명한 文臣이고 年代가 분명하여 이들은 모두 당시의 墓制研究에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특히 內棺·外槨을 갖춘 灰隔墓도 드물거니와 內棺 안에 넣어진

七星板과 靑華白磁墓誌片·靑銅鈴 등이 注目되는바 각종 教旨와 함께 保存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墓의 文人石, 墓表 등도 연구의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貞節公의 一括의인 遺蹟遺物로 각별한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註

- ① 金元龍「韓國美術史」(서울汎文社, 一九六八) 三二五頁
- ② 上同
- ③ 海東名臣錄 및 靑野漫輯
- ④ 栗谷全書 經筵日記略 隆慶四年 庚午
- ⑤ 이용조「청원아득이유적」(大清명水沒地區發掘報告書, 一九七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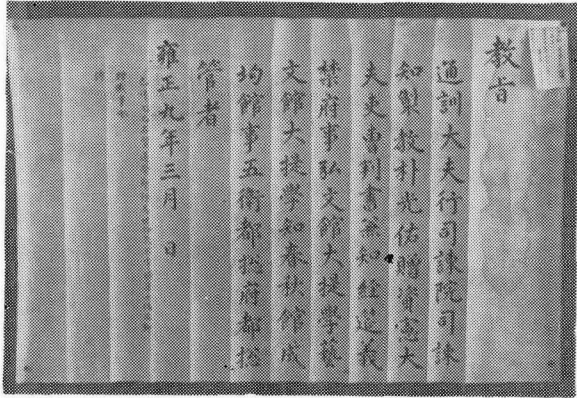


圖 6 贈職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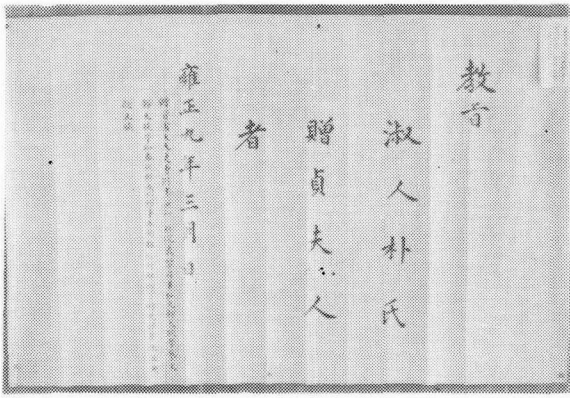


圖 7 贈貞夫人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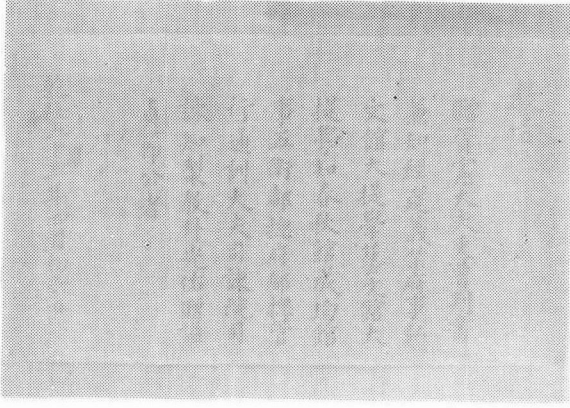


圖 8 誼號教旨 (1)



圖 9 誼號教旨 (2)